



배포 일시	2022. 9. 23.(금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호 (044-201-3847)
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 홍예표 (044-201-3934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C-ITS 인프라, 하이브리드 방식(V2X + V2N)으로 구축한다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그간 자동차가 인프라(V2I) 또는 다른 차량(V2V)과 직접 통신하여 협력하는 교통체계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) 확산을 위하여 통신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, 이를 통해 도로 안전 제고와 자율협력주행을 지원 중에 있다.

□ 이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직접통신*(V2X)만을 고려하여 C-ITS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V2N(Vehicle to Network) 방식도 병행할 계획(하이브리드 방식)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.

* 휴대전화 사용 시 이용되는 상용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차량과 차량(V2V), 차량과 도로인프라(V2I) 기기 간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통신방식(WAVE 또는 C-V2X)

○ 우선, 도심 내 혼잡 지역 등에서 전방충돌 위험경고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고 단거리에서 최소한의 지연시간으로 즉각적인 데이터 전달이 필요한 C-ITS 서비스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차량과 사물 간의 직접통신을 활용하는 한편,

○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 또는 일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안전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서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기존 상용 네트워크(V2N)를 활용할 예정이다.

*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C-ITS 구축 중

□ 하이브리드 방식은 안전성 제고의 측면과 재정 효율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통신기술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구체적인 하이브리드 운용방식*에 대해서는 도로특성, 교통서비스, 구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.

* 직접통신(V2X)과 V2N 적용구간 설정 등에 대한 추가연구 진행 예정('23~)

